

“사찰 물에 잠긴다, 예방책 마련하라!”

부산 청량사,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공사에 몰살

전통사찰인 부산 강서구 청량사(주지 운암)가 인근에서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심각한 수해 위험을 받고 있다. 하루 4500대에 달하는 덤프트럭이 사찰 앞을 지나면서 환경을 오염하는 것은 물론, 공사가 완료되면 청량사 인근 지반이 3~5m가량 높아져 침수 등의 문제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과 김무경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은 11월 25일 청량사 일주문 앞에서 수행도량 수호에 대한 결의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총 360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친환경 수변도시로 서울 여의도 4배 면적에 달한다.

이날 주지 운암 스님은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일주문 쪽에 도로가 완공되면 청량사는 도로의 먼지와 쓰레기 상사 유입은 물론이고, 상습침수지역으로 변해 사찰 기능이 마비될 게 볼 듯 뻔하다”며 “수많은 청원과 탄원을 통해 시행사와 건설사 등 관련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무성의한 자세와 관행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공사가 끝나면 청량사를 경계로 두고 있는 지반의 높이가 3~5m가량 높아져 도량이 분지형태를 띠게 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김무경 신도회장은 “절에 기도를 하려 오려고 해도 달리는 덤프트럭의 위협에 침

하루 덤프트럭 4500대 지나다녀

소음·진동에 수행 불면 겪어

완공 시 주변 지반 상승에 침수 우려

건설·시공사 대책 마련 미흡

사리 올 수 없는 이 현실은 누가 만들었는가. 믿음과 안전한 기도처를 앗아간 것은 수자원공사라고 규탄하며 “청량사는 강서구 유일의 전통사찰이며 자손대대 이어가야 할 보존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청량사는 △우회도로 건설 및 건식 청소, 방음벽 설치 △미세먼지 방지돌 설치 △복합문제 해결 △주변 안전 위한 출근시간 차

반면 에코델타시티 공사팀은 “앞으로 지



부산 청량사는 11월 25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대회를 개최했다.

량 통제 △진목마을 주변 2km 내 시설 공사 건설계획 공개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특히 청량사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내 부지와 인접한 위치에 있는 동일 면적의 대체 부지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신도회장은 “사찰을 둘러싸게 될 지반 높이의 경사를 완만히 하고 최대한 수행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부대중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 보장을 통한 진동방지 및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침수 우려는 공사를 통해 영향 받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이 남아 있어 도로 개설이 늦어진 상황이다. 청량사 뒤편 공사가 진행되면 우회도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량사는 제14교구 범어사 말사로 1959년 흥경선사가 주석한 사찰이다. 법당 후불탱화는 2005년 지방문화재로 등록됐으며, 마을의 수호사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나눔 실천은 곧 허공법계에 불사하는 것”

삼광사, 사단법인 나눔광장 출범식

전태종 부산 삼광사가 자비회사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삼광사(주지 무원)는 11월 25일 지관전에서 (사)나눔광장 출범식을 거행했다. 나눔광장은 베품과 봉사 그리고 기부 활성화 및 자비회사를 실천해 포교에 앞장서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표로 설립됐다. 이 자리에는 삼광사 240여 명의 간부 및 회원과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사단법인 나눔광장은 허공법계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절을 지은 바와 같다”며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은 시방세계 경계가 없어 도를 넘고, 국가를 넘어 찬탄 받을 일이다.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나눔광장은 삼일대포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공동대표 이현승·나성린 국회의원, 우보현·문창섭·문병기·노기태·조운섭 대표, 그의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하성미 기자

정법회거사님 창립50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정법회거사님(회장 남두희)은 11월 23일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초청지도법사 현각 스님과 동화사 재무국장 능혜 스님, 정법회거사님 지도법사 설호 스님 및 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정법회거사님은 ‘불교포교와 불교단체 활동’ 모범단체로 인정받아 총무원장 표창을, 남두희 회장은 감사패를 받았다.

남두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불교의 정법을 공부하는 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청법사인 현각 스님은 “나 자신에게서 찾는 수밖에 없고 또한 나 자신을 찾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불법만이 정법이다. 참



선과 화두선으로 참 나를 찾아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화두로, 정법회거사님 사부대중이 불교를 발전시켜 현대 젊은이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법문했다.

정법회거사님은 재가불자 11명이 발기해 1965년 11월 대구 동화사포교당 보현사에서 창립된 전국 최초의 신행단체 등록을 받아 조지했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부산 재가자 동안거 입재

11월 20일 흥법사서

부산 재가불자들이 90일 동안거 수행을 시작했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1월 20일 흥법사에서 ‘재가안거수행’ 입재식을 봉행했다.

입재식 전 재가자들은 <금강경> 독송과 108배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날 회장 수진 스님은 법어에서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뜻을 새기고 안거 기간 동안 밖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의 빛을 내면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거기간이 끝날 때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이곳에서 입재법회를 하게 돼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해인정사, 흥법사, 발원사, 선암사, 대광명사, 원오사, 영주암, 가야사 등 총 26개 사찰로 2000여 명의 재가자가 참가했다. 또한 부산 포교사단과 국제선센터에서 새롭게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천불정사 찾은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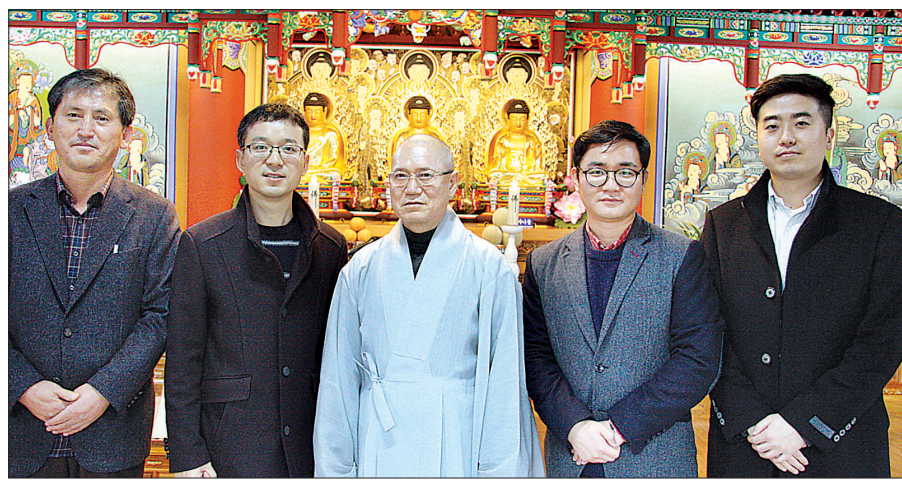
고시생들 돕는 고담 스님 인재불사 원력에 감사 인사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11월 25일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을 예방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이광수(99학번·통계학과), 황준우(02학번·행정학과), 박환준(05학번·행정학과) 씨는 모두 천불정사에서 마련한 고담정(古潭亭)과 신목정(信木庭)에서 고시공부를 하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합격한 이들이다.

고담정은 법학 및 행정고시생들을 위해 천불정사에서 2006년~2013년 동안 무상으로 마련한 기숙사다. 신목정은 부산대 행정고시생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다. 고담 스님은 인재불사를 위해 매년 신목정에 1000만원씩 지원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광수 씨는 “고담정에서 지내면서 시간도 절약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정보공유도 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며 “또한 힘든 시기 천불정사에 보살님들이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께 인재불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예방한 부산대 행정고시 합격자들과 지도교수.

초대해주셔서 따뜻한 음식으로 응원해주셨던 것도 기억한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환준·황준우 씨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받고 경제적, 심리적인 것 모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담 스님은 “합격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불교에는 회향의 정신이 있다. 앞

으로 봉사할 곳을 찾고 후배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담 스님은 현재 행정고시생 지원을 비롯해 결혼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 지원, 숙식 제공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도소 교정위원회 고문 및 교정경찰서 경승으로 활동하며 인재불사를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창건할 것”

부전선원 개원 3주년 기념법회

부산 부전선원(선원장 안국)이 개원 3주년을 맞아 11월 20일 문화대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법회와 2부 야단법석 토론 ‘부산불교발전 위한 전략’으로 구성됐다.

토론에서 토론자 및 사부대중은 부산불교의 중흥을 위한 과제로 인재불사와 현대적 포교방식 도입을 꼽았다.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부산불교 발전에 뜻을 모아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칭)’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부전선원 선원장 안국 스님은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내년 3월을 기점으로 현판식을 거행하고 10월에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로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전선원 개원 3주년 문화대제는 원로의원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의 법어와 천성예술단의 국악연주, 장애우 지원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수석부회장 자광 스님, 부회장 도원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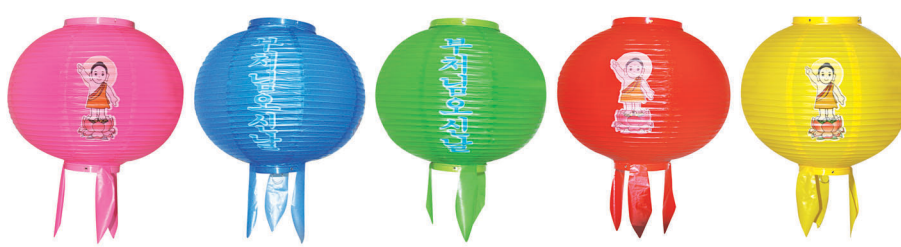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